

## 최고의 생일선물

### 주제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선물은 '청렴'이다.

### 기획의도

2016 반부패·청렴 사연(수기)수상작품 대상에 빛나는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을 각색하여 가상의 인물 '경옥'과 수기 속 인물 '복례'가 공장에서 부정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새로이 만들었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나가고, 언젠가 한번쯤 닥쳐올 수도 있는 부패의 위기에 맞서 청렴을 지켜내는 두 여인의 올곧은 모습을 그려내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시놉시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중년을 넘긴 모습의 복례와 경옥이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주고받는다. 20년 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둘이 어떻게 절친이 되었는지 회상한다.

20년 전 자동차부품공장. 40세의 복례가 조장의 자리에 서서 직원들을 감독하고 있다. 그 모습 지켜보는 30세의 경옥이 보인다. 혼자 딸을 키우는 경옥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그런 경옥의 눈에 복례가 배과장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들어온다. 경옥은 뇌물을 주고받는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경옥은 다음날 배 과장을 찾아가 지난 저녁의 일을 말한다. 불안해하는 과장의 모습에 경옥의 의심은 확신이 된다. 경옥과 배과장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하루아침에 조장이 된 경옥은 공장의 구매력을 위조해 자금을 횡령한 배과장의 부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배과장은 증거를 보고 경옥에게도 뇌물을 찢러 넣어준다. 그제야 복례와 과장의 만남이 이해가 가는 경옥. 복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옥은 배과장이 내미는 봉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채로 사무실을 나와 버리고 복례와 맞닥뜨리게 된다. 복례는 경옥의 손을 잡고 청렴을 지켜내자고 다짐하고, 경옥 또한 그 손을 잡고 다시 배 과장의 방에 쳐들어간다. 깜짝 놀란 배 과장에게 큰소리 치며 뇌물을 돌려주는 복례와 경옥의 당당한 모습. 그 위로 경찰 사이렌 소리 들리며 무대는 현재로 전환된다.

그 때를 추억하는 복례의 발치에 커다란 선물상자가 놓여있다. 손주의 생일선물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을 꺼낸 복례의 눈이 커진다. 선물의 가격이 5만원 덜 계산된 것. 경옥은 그냥 지나치자고 말하지만 복례는 손주의 생일선물인데 그럴 순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청렴이야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며 힘주어 말하는 복례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는 경옥. 서둘러 무대를 나가는 복례와 경옥의 모습이 보이며 무대는 막이 내린다.

## 등장인물

문복례(40세->60세) :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다. 많은 나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일해 조장까지 오르게 된다.

배 과장(50세) : 공장의 과장. 공장 직원들의 수당을 횡령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문복례를 조장 자리에서 제외시킨다.

강경옥(30세->50세) : 남편과 이혼한 후 공장에 취업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조장 자리를 욕심내고 있다.

동료 :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라인 직원. 방진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1인 다역 가능.

## 무대

무대 중앙에 동그란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놓여있다. 한 칸에 사무실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공장의 사무실로 쓰인다. 그 외 수틀 몇 개로 자동차부품공장의 생산라인의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다.

무대 막이 오르면 중앙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문복례(60세)와 강경옥(50세) 보인다.

경옥 :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복례 : 세상에,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경옥 : 보시는 대로? (웃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복례 : 에이, 세월이 있는 걸? 이렇게 쭉그렁 할머니가 됐는데 뭐.

경옥 : 저도 마찬가지로요. 하하. 참, 얼마 전에 퇴직 하셨다면서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복례 : 고생은 무슨. 남들 다 하는 퇴직인데.

경옥 :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오래 일하기가 쉬운가요? 다들 정년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데요. 언니는 정년퇴직도 넘겨서 일하신 거잖아요.

복례 : 맞아. 운이 좋았지.

경옥 : 그렇게 오래 공장에서 일하셨음 퇴임식도 해줬을 텐데. 뭐 없었어요?

복례 : 그냥 일했어. 평소처럼 퇴근했고.

경옥 : 세상에, 너무한다. 20년을 일한 사람한테 퇴임식도 안 해줬어요?

복례 : 내가 하지 말자고 했어. 마지막인데 한복입고 올림머리 하는 것보단 평소처럼 작업복 입고 일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경옥 : 에이, 그래도 아깝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인데 그냥 보내셨어요?

복례 :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식 올리는 게 더 낭비야. 허례허식이라고.

경옥 : 역시 언니답네요. 일밖에 모르셔. (사이) 그런데 우리 커피 시킨 지 꽤 지나지 않았어요?

복레 : 글썸? 모르겠는데.

경옥 : 아니, 지금 주문을 잊어먹은 거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벌떡 일어나려는 데)

복레 : 아유, 기다리면 오겠지.

경옥 : 이런 건 말을 해야 알죠! 우리 이러다가 커피 냄새도 못 맡고 일어나겠어요.

복레 : 일이 바빠가 보지. 지금 딱 점심시간 직후잖아. 한창 바쁠 때야.

경옥 : 맞다. 언니 아들이 빵집 한댔죠? 그럼 잘 아시겠네요.

복레 : 난 그냥 얘기만 전해듣는 정도인걸.

경옥 : 참, 얼마 전에 아드님 빵집 3호점 개업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복레 : 언제 한번 우리 빵집에 와. 내가 살게.

경옥 : 제가 사야죠! 호호호. (사이) 언니.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마디 하고 와야지. (자리에서 일어난다)

복레 : 아유, 됐어! 자기는 그런 때 없었어? 일이 바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야. 옛날 공장에서 실수하던 때 잊었어?

경옥 : (슬그머니 앓는다) 뭐, 그렇긴 했죠.. 그래도 그 땐 언니가 있었으니까. 조장 일은 기가 막히게 잘 했잖수.

복레 : 잘하긴! 실수만 많았지.

경옥 : 그래도 난 조장이었던 언니의 모습이 좋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다니면서 꼼꼼히도 봐주던 모습이 생생해.

경옥의 말에 무대는 20년 전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전환된다. 기계소리 들리며 무대엔 똑같은 방전복 입은 동료와 경옥이 나란히 앉아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경옥의 손놀림은 다른 사람보다 느린 모습이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복레가 그 모습을 보고 경옥을 도와준다.

복레 :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경옥 :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복레 : 실수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런데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왔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경옥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사무직은 급여가 적고, 월급날도 늦는다고 그래서.

복레 : 무슨 일 있어요?

경옥 :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딸 생일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있느라 바깥도 못 다니는데 이번 생일은 좀 근사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복레 : 좋은 엄마네요. 딸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봐요.

경옥 : 네! 감사합니다.

복례는 경옥을 다독이고 무대를 퇴장한다. 경옥은 복례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경옥 : (옆의 동료에게) 조장은 우리보다 월급이 많죠?

동료 : 그럼.

경옥 : 얼마나 많아요?

동료 : 글썸. 그래도 1~20만원은 차이나지 않겠어?

경옥 : 그렇게나 많이요?!

동료 : 그리고 업무배치도 직접 할 수 있고. 배과장님 알지? 회사 살림 도맡아 하는. 그 사람 일도 좀 도와줘야 해. 그래서 이런 작업도 빠지는 거잖아.

경옥 : 작업에서도 빠져요?

동료 :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거나 다름없지 뭐. 아휴, 나는 언제 조장 되어보나.

경옥 : 얼마나 일하면 조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동료 : 이건 짬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실력이지. 지금 조장이 얼마나 일을 잘한다고.

경옥 : 그럼 일만 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장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료 : 일만 잘한다고 되겠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줘야지. 지금 조장이 얼마나 출선수범하는지 알아? 나이도 많은데 맨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일 못하는 신입한테도 그렇게 잘해주기 쉽지 않아.

경옥, 동료의 말에 뻘뻘한 얼굴을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도 조장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얼른 일을 익히려고 업무에 매진한다.

그 때 업무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 들린다. 동료는 바로 일어나 방진복을 벗는다.

동료 : (일어나면서)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경옥 : 네, 살피 가세요.

동료 퇴장하고, 경옥도 주섬주섬 방진복을 벗어 구석에 걸어둔다. 조명의 변화와 함께 무대는 어느 카페의 앞으로 변한다.

무대 중앙이 암전된 사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다. 경옥이 방진복을 벗고 무대 중앙으로 나오면 그 앞에 복례와 배과장이 앉아 있다. 경옥,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배과장 : 복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

복례 : 과장님,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배과장 : 복례씨. 내가 정말 특별히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따로 얘기해주는

데도 정말 모르겠어?

복레 : 저야말로 과장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배과장 :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알 만한 사람이 왜 이래? 혼자 그렇게 나올 거야?

복레 :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배과장 : 내 생각도 변함없어. 복레씨야말로 조장이잖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복레 : 조장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라도 제 소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배과장 :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사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생각이 확고하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복레 : 가져가세요.

복레가 테이블에 손을 뻗어 과장에게 썩 밀어준다. 하얀 봉투다. 그 모습을 본 경옥이 소리도 못 지르고 놀란 모습이다.

배과장 : (봉투 받아들며) 후회 없는 거지?

복레 : 어서 가세요.

과장은 그대로 무대를 나가고, 복레는 그 모습 지켜보다 허공 바라보고 무거운 한숨이 나온다. 곧이어 과장과 반대방향으로 무대를 나가는 복레. 아무도 없는 무대를 확인한 경옥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고 중앙으로 나온다.

경옥 : 지.. 지금 뭐야, 뇌물, 뇌물 준 거 아냐?! 세상에.. 그래, 어쩐지 그렇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조장이라는 게 이상하긴 했어. (사이) 이렇게 조그만 공장에도 뇌물을 주고받다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 가만. 그럼 이걸.. 뇌물수수현장을 목격한 게 나뿐이라는 말인데? (황급히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뭔가 결심한 듯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는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뇌물을 준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는 없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이) 그래. 이걸 기회야.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 이걸 틀린 걸 바로잡아주는 거야.

경옥은 바로 배 과장의 사무실에 찾아간다. 무대 한 칸의 사무실 책상에 조명이 들어오면 배 과장이 앉아있다.

경옥 : 드릴 말씀 있습니다.

배과장 : (경옥 보지 않고 서류에 코 박고 있다) 네. 말씀 하세요.

경옥 : 어제 저녁, 조장이랑 만나셨죠?

배과장 : (식겁해서 경옥 올려다보며) 네?!

경옥 : 뭔가를 받으시던데요?

배과장 : ..무슨 말씀이신지?

경옥 : 어제 근처 카페에서 봤어요. ..받는 거.

배과장 : (모른 척) ..뭘 받아요?

경옥 :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받으셨잖아요, 봉투!

배과장 : (벌떡 일어난다)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증거 있어요, 증거?!

경옥 : 제 두 눈이 증거죠! 제 기억이 증거구요!

배과장 :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경옥 : 전 그런 사람하곤 일 못 해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죠. 어디서 그런 수를 쓰고 다녀요?

배과장 : 경옥씨, 잠깐 제 말 좀 들어봐요.

경옥 : 뇌물 조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안 그래요?

배과장 : (놀라서) 그, 그럼 지금 조원들 모두..

경옥 : 아직은 저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배과장 : (다행이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자리에 앉는다.) 경옥씨,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한데..

경옥 : 전 과장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이 어디 있나요?

배과장 : (골치가 아프다. 이마 짙으며 한숨)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옥 : 조장 교체해주세요.

배과장 : 조장을 바꿔요?

경옥 : 뇌물 조장과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배과장 :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장을 바꿔요.

경옥 : 왜 안돼요? 조장만큼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뇌물도 안 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되죠.

배과장 : 조장은 월급이 많은 대신 일도 그만큼 많아요.

경옥 : 과장님도 지금 조장보단 다른 사람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배과장 : 조장은 일이 웬만큼 숙달 되어야 하는 자리예요.

경옥 : 회사는 일만 잘해서 굴러가는 곳이 아니죠.

배과장 : 무슨 말이죠?

경옥 : 말 그대로예요. 제가 어제 저녁의 일을 왜 굳이 과장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릴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요.

배과장 :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경옥 : 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배과장 : 강경옥씨!

경옥 : 네. 말씀하세요.

배과장 : (눈 하나 깜짝 앓는 경옥의 태도에 오히려 웃음이 난다. 동시에 경옥이 원하

는 것을 알아챈 듯)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경옥 : 그럼요. 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나가기 전에.

배과장 : 경옥씨. 잠시만 시간을 줘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경옥 : 그러죠. 내일 과장님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경옥, 순식간에 뒤돌아 배과장에게 등을 보인다. 경옥이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배과장 : 알았어! 알았다고.

경옥 : 잘 생각하셨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젊은 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자랑 함께 일하면 말이 훨씬 더 잘 통하실 거예요.

배과장 : 경옥씨, 보기보다 배짱이 두둑하시네.

경옥 : 제 제안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배과장 : 그럼 오늘 일은 당연히..

경옥 :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승진한 거라구요.

배과장 : 그래, 확실히 젊은 사람이 말이 잘 통하네. 좋아. 잘 해보자구.

배과장, 경옥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경옥, 당당한 자세로 악수를 받아들인다. 경옥의 얼굴에 당찬 미소가 보인다. 무대는 작업장으로 전환되고, 배과장은 퇴장한다. 복레가 경옥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

경옥 : 오늘 할당량 끝나기 전엔 퇴근 못해요!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할당량이 좀 많네요. 오늘은 쉬는 시간도 단축해서 갈게요. 아시겠죠?

침묵.

경옥 : 대답 안하세요?!

복레, 동료 : (작은 소리로) 네에..

복레와는 확연히 다른, 수직적으로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옥의 자세.

경옥 :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퇴근 할 수 있겠어요? 더 빨리 못해요?!

복레 : 미안해요.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

경옥 : 나사를 이렇게 놓으시면 어떡해요? 불량품 만드실 거예요?

복레 : 미안합니다.

동료 : 조장, 좀 봐줘! 오랜만에 해서 손이 덜 풀린 거잖아.

경옥 : 제가 친굽니까? 왜 반말 이에요?

동료 : 뭐?



복례 : (동료에게) 그만해. (경옥에게) 죄송합니다. 얼른 손에 익도록 노력해볼게요.

경옥 : 잘 하세요. 잘.

경옥은 무대 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보기 시작한다.

동료 : 얼마나 일을 잘한다고 유세야, 유세는.

복례 : 아냐. 내가 못한 건데 뭐.

동료 :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아니에요. 배과장이 뭔가 뒤에서 손을 쓴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갑자기 조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복례 : 일을 잘 하니까 됐겠지.

동료 : 일이요? 허구헌 날 실수만 하던 사람이 무슨. 제가 봤어요. 어제 배과장 사무실에서 조장이 나오던 거. 그리고 오늘 바로 조장이 교체됐잖아요. 형님. 이걸 아무리 봐도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복례 : 조용히 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동료 :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선 이 상황이 말이 되요? 형님, 형님이 그동안 너무 우직하게 일만 해서 이래요. 요즘 세상이 어디 일만 잘해서 되는 세상인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 되면 선물도 좀 넣고, 생일도 챙겨주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챙겨줘야 뒷사람들이 알아주죠. 형님은 그동안 너무 일만 했어요.

복례 :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처음엔 음료수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어떤 것을 줘야 할지 모르는 게 뇌물이고 청탁수수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습관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정말 보람이 있을까? 안 그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진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만드는 이 자동차도, 세상도 잘 굴러가는 거야.

동료 : 그래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지름길이 있는데 뭐 하러 돌아서 가겠어요.

복례 : 원리원칙을 지켜야지. 조금 더 빨리 가려다 결국엔 교통사고 나는 거 몰라? 신호등도 지키고 규정속도도 지켜야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속도보단 안전, 성공보단 청렴이라구. 난 애들 얼굴 봐서라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동료 : 그래도 그게 어디 쉽나요. 당장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당장 퇴근하고 저녁 장 볼 때도 손이 덜덜 떨려요.

복례 : 당장 오늘 저녁보단 더 미래를 생각해봐. 사람이 살아갈 때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동료 : 허이구, 그 긍지 찾다가 굶어 죽겠네요.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멀쩡히 일 잘하다가 갑자기 강등됐잖아요. 왜 따지지도 않아요?

복례 : (뭔가 걸리는 게 있다. 하지만 말을 삼킨다) 이게 내 실력인가 봐. 하하.

동료 : 실력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누구보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이 왜 이래요? 형님, 내가 인사팀에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 시켜줄까요? 배과



장, 형님이 직접 따져선 듣지도 않을 거예요.

복례 : 내가 왜 집 가까운 사무직 일자리 놔두고 여기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다는 걸 뿌리치고 온 거야. 정정당당히 내 실력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뒷구멍으로 가면 그 자리에 올 정당한 실력의 구직자의 일자리를 내가 빼앗는 셈이 되잖아? 그런 돈으로 어떻게 아이들 밥을 먹여. 나는 못해.

동료 : 아이들 밥이 걸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하네요..

복례 : 그래, 애들 생각하면 절대 허투루 살 수 없어. 나만 바라보는 애들인데.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애들이 보고 배울 텐데. 내 행동 모두 다 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 해봐.

동료 : 저는 좀 무서운데요. 그 개구쟁이들이 엄마 일하는 것 까지 보고 있다고 하면. (웃음)

복례 :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지. (사이) 어휴, 또 잘못 끼웠네.

동료 : 형님은 일단 입보다 손부터 푸셔야겠수. 쥐 봐요. 알려줄 테니까.

복례와 동료가 일에 집중하는 사이, 서류를 보고 있던 경옥의 눈이 커진다.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다른 서류와 비교도 해본다. 그래도 경옥의 눈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경옥이 서류에 빠져있는 사이 업무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동료 : (일어나며 기지개 쭉 편다) 아유, 힘들어. 고생하셨어요. 형님.

복례 : 응, 자네도 수고했어.

경옥 : 할당량은 다 마치셨어요?

동료 : 으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자! 봐요.

경옥이 복례와 동료의 자리로 다가와 작업 현황을 살핀다. 꼼꼼히 상태를 살핀 경옥. 복례의 책상에서 부품 하나를 집어 올린다.

경옥 : 문복례씨, 이거 나사가 덜 조여졌잖아요.

복례 : 네?

복례가 경옥에게 부품을 받아 살펴보면 나사가 아주 살짝 덜 조여진 모습이다.

복례 : 아이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경옥 : 빨리빨리 보다 안전하게, 튼튼하게가 더 중요한 거 모르세요? 일 이렇게 대충 하실 거예요?

복례 : 죄송합니다.

동료 : 아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조장은 옛날에 안 그랬어요?!

경옥 : (무대 한 켠에서 나사가 가득 담긴 바구니 들고 온다) 오늘은 문복레씨만 잔업하는 걸로 할게요. 실력이 달리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죠.

동료 : 조장!

경옥 : (동료에게) 같이 하실 건가요?

복레 : (동료에게) 어서 가. 얼른.

동료 : 어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언니, 고생해요. 먼저 가서 미안해.

동료 퇴장. 복레는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한다. 경옥도 제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서류 작업에 열중한다. 경옥은 작업에 집중한 복레를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배과장의 사무실로 향한다.

배과장 : 어, 조장으로 일한 하루는 어때?

경옥 : 여쭙 게 있어서요. (책상 위에 서류를 놓는다)

배과장 : 에이, 이렇게 딱딱하게 굴거야? (서류 보고) 자재 구입한 서류잖아. 이게 왜?

경옥 : 여기 보시면 구매부에서 들여온 자재랑 저희가 사용한 자재랑 수량이 달라요. 차이도 꽤 크게 나구요.

배과장 : 응, 그러네.

경옥 : 이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남는 돈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요.

배과장 : 그래서?

경옥 : 그래서 여쭙러 온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건지.

배과장 : 다 알고 온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나한테 조장 자리 가지고 협상한 거 아닌가?

경옥 : 네?

배과장 : 뭐야. 그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협박한 거였어?

경옥 : 이 돈, 설마 과장님이 횡령하신 거예요?

배과장 : 말조심해. 횡령은 무슨. 이건 자금유통이라고 하는 거야.

경옥 : 이건 범죄예요!

배과장 : 그럼 경옥씨가 나한테 협박해서 조장 자리 앉은 것도 범죄야.

경옥 : 그날 복레씨랑 만난 건 뭐예요?

배과장 :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나한테 들이댄 거지. 앞뒤가 짹 짹 막혀서 돈을 쥐도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 있더군. 그래도 신고는 안한 거 보니 그렇게 막힌 사람은 아닌 가봐. 하긴, 그 아줌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월급은 받고 그만 두셔야겠지.

경옥, 이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경옥의 오해와 질투로 강등당한 복레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배과장의 횡령을 덮어둘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작업을 마친 복레는 주위를 둘러본다. 자리에 없는 경옥을 찾아보다가 배과장의 사무실 앞에 서서 대화를 엿듣게 된다.

경옥 : 공장 회계부에 알리겠어요.

배과장 : 회계부가 이걸 모를 줄 알아? 다 쉬쉬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수지를 맞춰?

경옥 : 이건 범죄고 부정 이에요! 고쳐야 한다구요.

배과장 : 우리 팀만 이러는 게 아냐. 다른 팀 모두 이정도 장부조작은 기본이라고. 우리 팀만 이러면 회계부가 왜 가만히 있겠어?

경옥 : 그럼 수갑 차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시죠.

배과장 : 그럼 공장이 망하는데? 잘 생각해봐. 공장이 망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망할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나?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돈이 끊기는 당신네들?

경옥 :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배과장 : 그 말 아주 낮이 익네. 그럼 이 말도 낮이 익겠어. 기억나? 우린 말이 아주 잘 통할 거라는 말.

경옥 : 과장님!

배과장 : (책상 서랍 속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제 보니 이 봉투의 주인은 문복레씨가 아니라 강경옥씨였네.

배과장, 경옥의 손에 봉투를 쥐어준다. 경옥, 당장 봉투를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배과장의 말이 경옥의 손을 멈추게 만든다.

배과장 : 어때? 복레씨한테 줬을 때보다 좀 더 두툼할거야.

봉투를 쥔 경옥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지만, 당장 내일 쓸 생활비가 궁한 경옥에게 배과장의 봉투는 커다란 유혹이었다.

배과장 : 이력서 보니까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거 같던데. 그럼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애도 어리던데. 초등학교가 이 근처였지?

경옥 : 지금 제 개인정보도 보신 거예요?

배과장 : 이력서 정도는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무슨 개인정보를 따져?

경옥 : 사생활 침해예요!

배과장 : 왜, 내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경옥 : 과장님!

배과장 : 경옥씨. 우린 서로 말이 잘 통할 거라고 믿어. 그날 저녁 날 찾아온 경옥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난 그게 경옥씨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

배과장, 책상에 놓인 서류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 모습 본 경옥의 손에 힘이 빠져 들고 있던 봉투가 떨어진다.

배과장 : 봐. 괜찮잖아. 겨우 이 정도야.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응?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경옥은 온 몸에 힘이 들어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경옥 : 즈, 증거가..

배과장 : 증거? 무슨 증거? 아, 경옥씨가 나한테 돈을 받았다는 증거?

경옥 : 과장님!

배과장 : (웃으며) 농담이야. 우린 말이 잘 통하는 사이니까. 어서 가봐.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경옥, 배과장에게 목례 하고 조금씩 걸음을 옮긴다.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배과장이 경옥을 붙잡는다.

배과장 : 경옥씨, 잠깐!

경옥이 뒤를 돌아보면 배과장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준다.

배과장 : 이걸 떨어뜨렸길래.

경옥, 봉투를 건네는 배과장의 손을 보며 잠시 서 있다. 이걸 받아야할지, 그냥 나가야할지 모르겠는 표정이다.

배과장 : 손 떨어지겠네.

배과장, 경옥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준다.

배과장 : (경옥의 귀에 바싹 붙어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 품었다간 봐. 내가 당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그대로 사무실 바깥으로 경옥을 내보내는 배과장. 사무실 문이 닫히고, 경옥은 그 앞에서 겨우 서 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문을 짚고 겨우 서서 한숨을 쉬는데 복레가 바

로 앞에 서 있다.

경옥 : 보, 복례씨.

복례, 아무 말 없이 경옥을 안아준다. 복례의 포옹에 경옥의 미안한 마음이 폭발한다. 결국 주저앉는 경옥.

경옥 : 미안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전 그날 복례씨가 뇌물을 주는 줄 알고..

복례 :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경옥 : 배과장이 제 앞에서 서류를 모두 찢어버렸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인데 어떡하죠?

복례 : 괜찮아요. 그건 사본이니까.

경옥 : 네?

복례 : 경옥씨가 발견한 서류는 제가 복사해놨던 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경옥 : 미안해요. 다 나 때문에..

복례 : 신고하러 가요, 우리.

경옥 : 안돼요.. 전..

복례 :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짓값을 치르게 해야죠.

경옥 : ....뇌물을 받았어요. 배과장한테..

경옥, 봉투를 꺼내 보여준다. 복례는 그 봉투를 가만히 보고만 있다. 경옥은 복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경옥 :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손에 들려주는 걸 그냥 나왔어요. 뿌리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복례 : (경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거, 실수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 (경옥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경옥 : (복례를 보지 못한다) 아뇨. ..안 할래요.

복례 : 경옥씨.

경옥 : 이 돈이면 저랑 제 딸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한 달 월세도 미리 저축해놓을 수 있구요. 우리 딸 병원비도 보탬 수 있고, 가끔 가다 맛있는 거라도 먹자며 외식이라도 할 수 있구요. ...배과장 말이 맞아요. 눈 한번만 딱 감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복례씨. 저 이번 한번만, 딱 한번만 눈 감을게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만 알고 있잖아요.

복례 : 경옥씨. 잠깐만. 진정하고 제 말 들어요.

경옥 : (다급하게) 저, 내일 당장 조장 자리 그만 들게요. 다시 조장 하세요. 어차피

저 월급 아니면 조장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레씨. 복레씨도 딱 한번만..

복레 : (경옥의 어깨를 다잡고 눈을 똑바로 맞춘다) 경옥씨. 지금 이건 순간 이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다음 인생이 달라져요. 딸이 있다고 했죠? 얼마 뒤에 생일이라고, 근사하게 치러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런 돈으로 딸의 생일을 치러줄 거예요? 딸이 과연 기뻐할까요? 아이를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전부 아이들이 보고 따라해요. 애들은 몰라도 다 알아요.

경옥 : (복레와 눈이 마주치다가 다시 손 안의 봉투를 본다. 봉투 꼭 쥐고) 이런 돈이면 어땠고 저런 돈이면 어때요. 돈이면 다 똑같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닌가요? 그렇게 깨끗하게 굴면 하늘에서 돈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쪽도 여자잖아요. 남편 사별하고 공장 들어오셨다면서요. 저한테 한 푼이 소중한요. 돈은 다 똑같아요. 전 이걸로 우리 딸 예쁜 옷도 입히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다고요.

복레 : 경옥씨. 제발 나중에 생각해봐요. 지금 저도 한 푼이 아깝고 돈 100원에 찢찢매요. 우리 남편 장례식장이 어땠는지 얘기해 줄까요? 회사에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남편은 동기들보다 직급이 가장 낮았어요. 생전에 선물 하나 안 돌리고 싫은 소리만 도맡아 하던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가족들만 손가락 빨고 살았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게 다 그이의 소중한 유산이 되더라구요. 회사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이의 대쪽 같은 청렴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평평 울어서 발갛게 부은 눈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눈빛을 봤어요. 경옥씨. 부모가 해줄 건 근사한 생일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경옥씨가 앞으로 청렴하게 살아갈 인생이 딸에겐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거라고요.

경옥 : ...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복레 : 괜찮아요.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자.

복레, 일어나서 경옥에게 손을 내민다. 경옥,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난다.

복레, 경옥의 손을 잡고 다시 배과장의 사무실 문을 활 연다. 배과장 퇴근하려다가 둘을 발견한다.

배과장 : 뭐야, 아직도 안 갔어? 복레씨는 왜 왔고?

복레 :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실 건가요?

배과장 :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무슨 말이야?

복레, 경옥의 손에 들린 봉투를 책상위에 활 내려놓는다.

복레 : 이런 짓은 저 하나만으로 끝내셨어야지요.

배과장 : 정말 여전히 답답하게 구네. (경옥에게) 이 사람아, 이걸 들키나?

경옥 : 이..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배과장 : 아이, 왜 그래? 딸내미 생일이라며. 수고한다고 내가 좀 챙겨준건데. 그걸 이렇게 받을 거야?

경옥 : 제 뜻.. 변함없습니다.

복레 : 배과장님 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이려고 어떻게 아이들 얼굴을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배과장 :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정의의 아줌마들이네.

복레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경찰에 가요.

배과장 : 아줌마들이 뭘데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는 거야? 그쪽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복레 : 과장님. 제발요.

배과장 : (봉투 속 금액 확인하며) 이게 적었나봐? 말을 하지 그럼.

경옥 :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배과장 : 경옥씨도 이게 마지막이야. 생각 잘해.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이거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주변을 봐. 사람들 다 안 그런 척 살지만 뒤로 호박씨 까고 잘 살고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다 따지면서 살면 피곤하지도 않아?

복레 : 모든 사람들이 다 과장님처럼 살진 않아요. 떳떳하게, 청렴을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배과장 : 그게 명정한 거거든. 경옥씨. 다시 잘 생각해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딸내미한테 근사한 생일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찬스.

복레 : 과장님이야말로 다시 생각하세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마시구요.

배과장 : 이 아줌마들이 정말 답답하게 구네. (봉투 들어올리며) 이게 무슨 의미인줄 몰라? 이걸 기술이야. 인생을 더 잘 살게 해줄 삶의 기술! (복레를 톡톡으로 가리키며) 기술을 모르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기술을 알면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경옥 : 기술이라니요? 그건 부정이예요!

배과장 : 처음엔 며칠 잠도 못 잤지. 사람들 목소리, 눈빛만 봐도 심장이 덜컥 멈췄고. 이러다 제 명예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도 먹었어. 하지만 다 잠깐이야. 지금 바로 수갑을 찰것만 같지? 며칠만 지나면 세상이 달라져. 당신들처럼 무식하게 일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까?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다 내가 했다. 저것도 내가 하고 그것도 내가 했다, 생색을 해야 윗사람들이 알아주지. 그래야 내가 올라가고 삶이 올라가는 거야.

복레 : 지금 자신이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고 고해성사 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도 당신처럼 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평생을 살아내라구요? 그리고도 당신이 부모입니까?

배과장 : 이게 세상이야! 그렇게 바르게 살아온 당신들한테 지금 남는 게 뭐지? 고작



이 몇 백만 원 때문에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날 찾아온 거 아닌가? 이 까짓 돈 난 없어도 그만이야. 하지만 당신들한테 큰돈이겠지. 안 그래? 이게 당신들과 나의 차이라고.

복레 : 이 돈보다 더 큰 숫자를 횡령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고작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줄 아십니까?

배과장 : 그럼 이거 말고 뭐가 있나?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눈앞에 가져올 수 있냐고!

복레 : 무작정 찢고 태운다고 부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복레,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배과장의 눈이 커진다.

복레 : 서류를 살필 땐 잘 보셔야죠. 사본과 원본 확인도 안하시면 어떡합니까?

배과장 : 이 아줌마가 진짜!

배과장, 복레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한다. 그 앞을 막아서는 경옥.

경옥 : 폭행죄도 더 추가해 드릴까요?

배과장 : (치켜든 손을 들고 가만히 있다가) 돈이 적었나? 그래, 둘이니까 당연히 적었겠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시간을 더 줄 수 있어? 내가 다시 준비해올 수 있어.

복레 : 저희는 과장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옥 :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잘 잡으셨어야죠.

배과장 : 다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인사팀에 당신들 얘기 잘 해볼게. 월급도 오를 테고, 일도 지금보다 더 편해질 거야!

복레 : 늦었어요. 이미 경찰에 얘기 끝냈습니다.

배과장 : 뭐?

복레 : 아까 찢은 사본 다시 잘 붙여보세요. 어디로 보낸 팩스인지 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

배과장 : 아냐, 안 돼. 안 돼!

복레 : 경옥씨, 여기 경찰서 팩스 번호가 뭐였더라?

배과장, 황급히 쓰레기통을 열어 찢어진 서류들을 살핀다. 조각들이 어지럽게 바닥에 쏟아진다. 조각을 맞춰보다가 그만 뉘버리는 배과장.

배과장 : (일어나서) 이러면 나만 잡혀 들어갈 줄 알아? 경옥씨, 나한테 돈 받았잖아! 그걸 왜 꿀꺽 하려해?

경옥 : 그, 그래서 돌려 드린 거잖아요!

복레 : 아직 경찰한테 그 얘기는 안했는데. 얘기 할까요? 고작 몇 백인데.

배과장 : (불리한 처지를 직감한다) 이러면 찢리는 거 몰라? 회사 기밀을 고발해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 같아?

경옥 : 그런 회사라면 일 안하는 게 낫죠.

배과장 :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한 푼이 중요한 상황 아니었어? 굶어 죽고 싶어?

복레 : 네, 그런 더러운 돈을 받느니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런 돈으로 밥 먹일 수 없어요.

복레의 당당한 태도에 그녀를 보는 경옥의 눈빛이 달라진다. 복레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마저 담겨있는 듯 하다.

복레 : 과장님, 삶의 기술은 청렴 이에요. 부정에 눈 감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구요.

배과장,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번쩍이는 조명. 서서히 어두워지는 무대.

무대 밝아지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 중년의 복레와 경옥이 앉아 있다. 그 사이엔 커피와 과자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있다.

복레 : 봐. 기다리니까 오잖아. 실수해도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주고.

경옥 : (과자 한 입 베어문다) 역시 공짜로 먹으니 더 맛있네요..

복레 : 또 그런 소리 한다. 공짜 좋아하지 말랬지?

경옥 : 언니도 맛있게 드셔놓구서는. (민망한 듯 발을 짝 뺏는데 발치에 뭐가 걸린다. 테이블 밑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쇼핑백이 놓여있다.) 언니, 이게 뭐예요?

복레 : 우리 손주 주려고 산거지.

경옥 : 어유, 좋겠네~ 할머니한테 이런 선물도 다 받고.

복레 : 말도 마. 이거 사느라고 백화점을 다 뒤졌어.

경옥 : 할머니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손주가 기다리겠어요. 일어날까요?

복레 : 그럴까? 이거, 내가 살게.

경옥 : 네?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복레 : 동생은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사줄 때 감사히 받아.

경옥 : 제가 이거 받고 눈 딱 감으면 어찌려고 그러세요?

복레 : 이게 뇌물이야? 선물이지. 기분 좋게 받으면 그걸로 된 거지!

경옥 : 그러네요. 잘 먹었습니다~ 하하.

경옥이 멍쩍게 웃고, 복레는 지갑을 꺼낸다. 지폐를 꺼냈는데 달려 올라온 영수증을 살핀다. 복레의 눈이 커진다.

복례 : 응? 금액이 왜 이러지?

경옥 : 뭐 잘못 된 거 있으세요?

복례 : 우리 손주 선물 산 영수증인데. 금액이 이상해. 이 가격이 아닌데.

경옥 :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복례 :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본다) 계산이.. 덜 되었어. 5만원을 더 싸게 줬네.

경옥 :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매장도 나왔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복례 : 다시 가서 계산 해야지.

경옥 : 거길 다시 가신다구요? 차비가 더 나오겠어요. 그냥 댁으로 가세요. 싸게 샀으니 더 좋잖아요.

복례 :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게 부정인 거 몰라? 나중에 5만원이 부족할 때 가게 직원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경옥 : (불멘소리로) 그럼 그 직원 잘못이죠..

복례 : 우리 손주한테 그런 욕심을 선물하란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지. 바쁘지 않으면 같이 가. 자기한테 붙은 부정도 함께 계산해줄 테니까.

경옥 : 언니!

복례 : 항상 기억해. 우리가 사는 일상 모두 아이들한테 물려줄 유산이고 선물이야. 부정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경옥 : 맞아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청렴이죠! 가요. 제가 택시 잡을게요!

경옥 서둘러 무대에서 퇴장한다.

복례 :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누구에게 물려줄 세상인데!

복례, 다짐하듯이 객석을 향해 말하고 퇴장한다. 밝은 음악 흐르며 막이 내린다.